

국제교류교육원 해외 단기 어학연수 보고서

이 름	박다운	소 속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연수 국가	일본	해외 연수 기관	Tokyo Metropolitan University
연수 기간	2019.1.7.(화) ~ 2019.1.26.(토)		

지금까지 여러 번의 일본 여행을 통해 어느덧 일본에서의 미래까지 꿈꾸었던 저는 짧은 3주의 기간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일본생활을 체험해 보고 싶어 해외단기연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 아닌 단기간의 생활을 통해 여행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느끼고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 상황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지 학교 프로그램 및 시설이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 같은 단기연수생 간의 교류나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원활하여 적응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수업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오전수업은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오후수업은 1시부터 4시 30분 경까지 매일 진행되어 학기 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며 내용은 일본 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일본 문화산업의 큰 틀인 만화, 애니메이션, J-POP, 일본무용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현지에서 듣는 수업이 아니라면 접할 기회가 없는 내용들이어서 흥미롭게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자주 질문이나 대화를 유도하시고 혹시 틀린 문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잘 정정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회화 실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서도 일본 문화의 역사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다 보니 꽤 어려운 한자들과 내용들이 많아 새로운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학교 내에서도 부활동, 동아리 등의 개념이 강한 나라인 만큼 수업 이외에 부수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인으로 구성된 학교 내의 서예부들과 서예체험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HANDS"라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과 친목도모를 할 기회도 있었고, "JAPAN STUDEIS"라는 시간이 있어서 교과서를 통한 수업이 아닌 전문분야에 계신 외부 초빙 일본인 선생님께 일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의 접근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Field Trip"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관련있는 지브리박물관, 타치가와 만화 공원 등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Field Tr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지브리 박물관은 해외에서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타치가와 만화 공원은 유명하지 않지만 일본 특유의 만화를 좋아하는 문화의 의의를 지닌 공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었습니다. 일본인들의 만화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수를 갔던 기간에 일본은 성인식과 수능이라는 전국적인 큰 행사가 월요일, 금요일에 잡혀있어 의도치 않게 3일 연속 연휴(금,토,일 또는 토,일,월)를 2주 연속 얻게 되었습니다. 연휴일 때는 후지산, 신주쿠, 오다이바, 도쿄타워, 긴자, 롯본기, 시부야, 하라주쿠, 오모테산도 등을 다녀왔습니다. 후지산은 도쿄에서 출발하는 경우 야마나시현의 가와구치호수가 가장 잘 보인다는 정보를 얻고 신주쿠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야마나시현의 명물이라는 호우토우도 먹었는데 맛은 평범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 덕분에 후지산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후지산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새삼 인간은 자연 앞에서 작은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지산 옆 후지큐 하이랜드라는 놀이공원에서 후지산의 경관을 보며 놀이기구를 타는 희귀한 경험도 하였습니다. 도쿄에서 가장 즐거웠던 기억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후지산 이외에도 도쿄 시내 여러 곳을 가 보았는데 3일 연휴이기 때문인지, 도쿄에 원래 관광객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사람이 많은 지역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런 경험조차 저에게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숙소는 위치가 시내와 멀고 도쿄를 벗어나 있는 것이 단점이었지만 호텔이었고 1인실이며 매일 청소를 해주셔서 20일 동안 정말 편하게 묵을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필요한 모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학교도 역 바로 앞에 위치해있어서 숙소와 학교까지는 10분 정도, 수업을 들었던 국제교류원까지는 2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20일 동안 불편함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출국 전에는 단 20일로 일본의 생활을 경험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
다만 지금 돌이켜 보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우선 일본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전반적인 일본 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 비슷한 물가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도쿄가 한국보다는 물가가 더 비싸다는 것을 체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여행에서도 느꼈지만 일본인들은 질서가 몸에 베어 있어서 시민의식이 높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번 단기연수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협력해주셨던 학교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